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참고자료</b>	
	<b>배포일시</b>	<b>2021. 12. 8.(수) / 총 2매(본문2)</b>
<b>담당 부서</b>	주택정비과	<b>담당자</b>
		• 과장 김기용, 사무관 김의연, 주무관 양승혁 ☎ (044) 201-3385, 3394
<b>보도일시</b>		<b>즉시 보도 가능합니다</b>

## 국토부·서울시 12월말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 서울특별시(서울시장 오세훈)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공모하고, 내년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공공재개발은 LH·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,
  - 용적률 상향, 인·허가 간소화,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(정비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5년 이내)이 가능하다.
-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(‘20.9.21~’20.11.4)를 통해 올해 1월·3월 서울시 내 후보지 24곳(2.5만호)을 선정했으며, 이후 경기도에서도 7월·10월 후보지 5곳(0.9만호)을 선정해 현재 총 29곳(3.4만호)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.
-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①기존 정비구역(재개발구역, 주거환경개선사업), ②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·해제구역이며,

-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주거정비  
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 규제가 완화됨으로써, 관련 규정  
으로 그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구역도 이번 공모를 통해  
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.
  - 또한, 서울시에서 12월말 선정할 예정인 민간재개발 후보지(신속  
통합기획)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며,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 
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원활하게  
재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.
  - 한편, 이번 2차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·  
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\*을 반영해 30%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.
- \* 구청장의 정비계획입안제안을 위한 주민동의율 변경(10%→30%)
-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상향된 주민동의율과 연말연시·설연휴  
등을 고려하여 공모 기간을 1차 공모기간(45일)보다 다소 연장(확대)  
하고 공모에 접수된 구역을 신속히 검토하여 4월 중 후보지를  
선정하겠다는 입장이며,
  - 보다 구체적인 공모대상, 선정기준, 절차를 담은 공모계획안은  
12월말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 
주택정비과 김의연 사무관(☎044-201-338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